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995-01

쉬운정보

쉬운 글과 만화로 보는

장애차별 결정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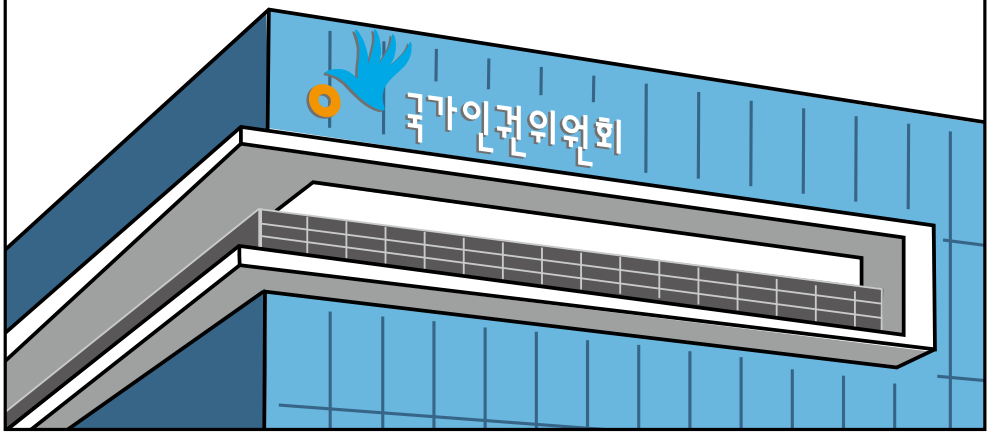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쉬운 글과 만화로 보는

장애차별 결정례

쉬운 글과 만화로 보는

장애차별 결정례



들어가는 글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지키고, 누구나 차별받지 않도록 다양한 활동을 하는 기관입니다. 장애인은 차별받았을 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신청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결정례란 무엇인가요?

진정을 신청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한 사건을 조사합니다. 조사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와 방법을 제안하고, 그 내용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된 것이 바로 '결정례'입니다.

이 자료는 왜 만들어졌나요?

<쉬운 글과 만화로 보는 장애차별 결정례>는 발달장애인(자폐성장애인, 지적장애인)을 위해 만든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발달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례를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발달장애인이 경험한 인권 침해 사건을 알려서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우려 합니다.

이 자료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발달장애인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사건, 경찰 조사를 받는 사건, 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차별받는 사건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대처 방법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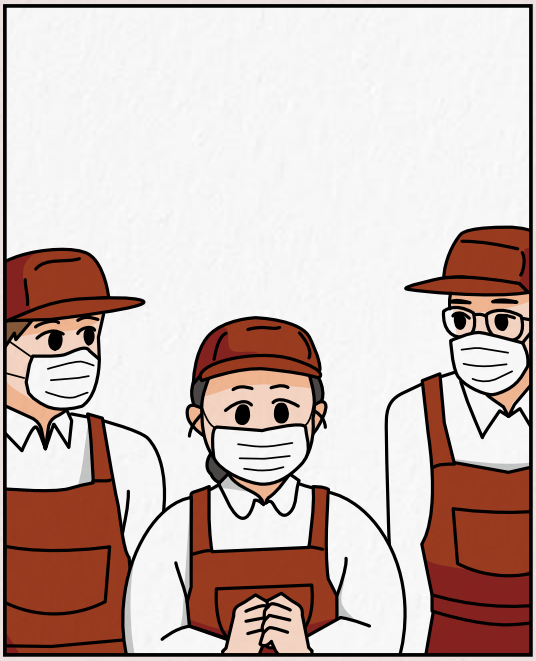
이 자료에 나오는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지만, 자료에 맞게 내용을 조금 바꾸기도 했습니다. 만약 원래 결정례의 내용을 보고 싶다면 자료에 있는 QR코드를 찍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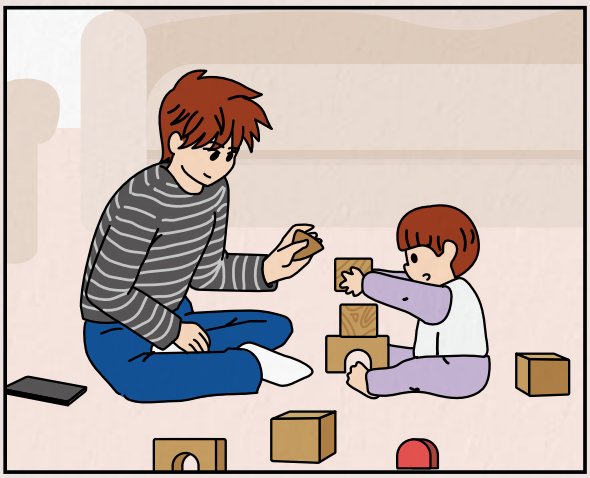
이 자료는 어떻게 만들었나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만화와 쉬운 글로 사건을 소개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자료를 감수하고 검토하여 이해하기 쉬운지 확인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어떻게 사용되나요?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기관과 장애인 단체에 배포됩니다. 발달장애인 교육 자료로도 사용할 계획입니다.





순서

들어가는 글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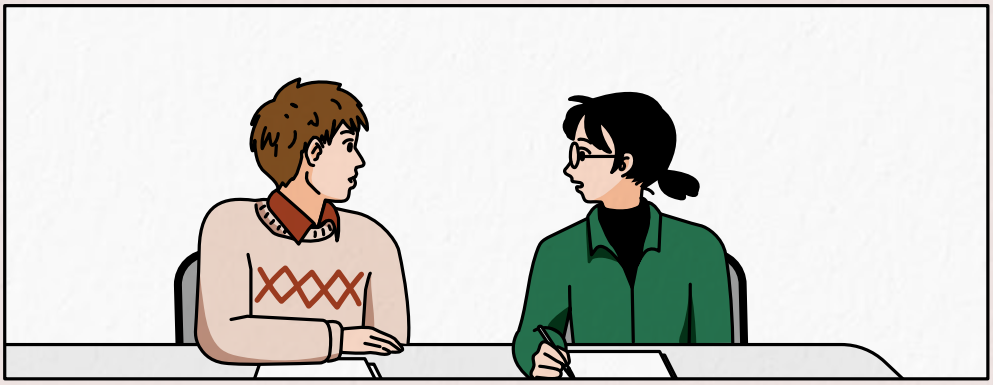
첫 번째 결정례
경찰수사 사건 8

두 번째 결정례
발달장애인 직원에 대한 괴롭힘 사건 30

세 번째 결정례
인감증명서 발급 거부 사건 58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진정 신청하기 84

나가는 글 86



첫 번째 결정례

원래 결정례가 궁금하다면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찍어 보세요

경찰수사 사건

사건 번호 23진정0162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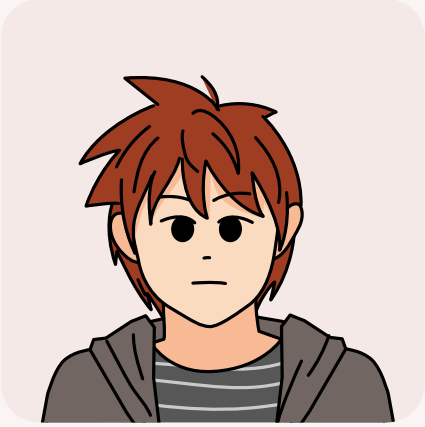
박한국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를 수사하는
김경찰에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

발달장애인인 박한국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발달장애인에게 당연한 권리인

‘발달장애인 전담사법경찰관 담당 조사’,
‘신뢰관계인 함께 참석’을 누리지 못했다.

박한국은 조사를 마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을 진정했다.

나오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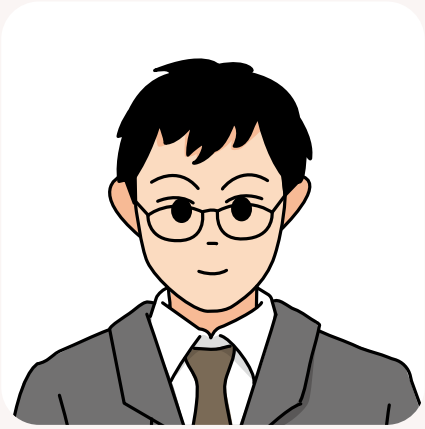


박한국

이 사건의 진정인이다.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다.

김경찰

이 사건의 피진정인으로, OO경찰서
수사과에서 일하고 있으며,
주로 보이스피싱 사건을 담당해
조사한다.



사회자

박한국 씨와 김경찰 씨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듣고, 질문하고,
정리하는 사람이다.

알아 두면 좋은 단어

발달장애인 전담사법경찰관

발달장애인이 범죄의 피해자나 피의자가 되었을 때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
발달장애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속여서 돈을 빼앗는 사기.

신뢰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도움을 주는 사람.
마음을 안정시키고 의사소통하는 과정을 돕는다.

피의자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아 조사를 받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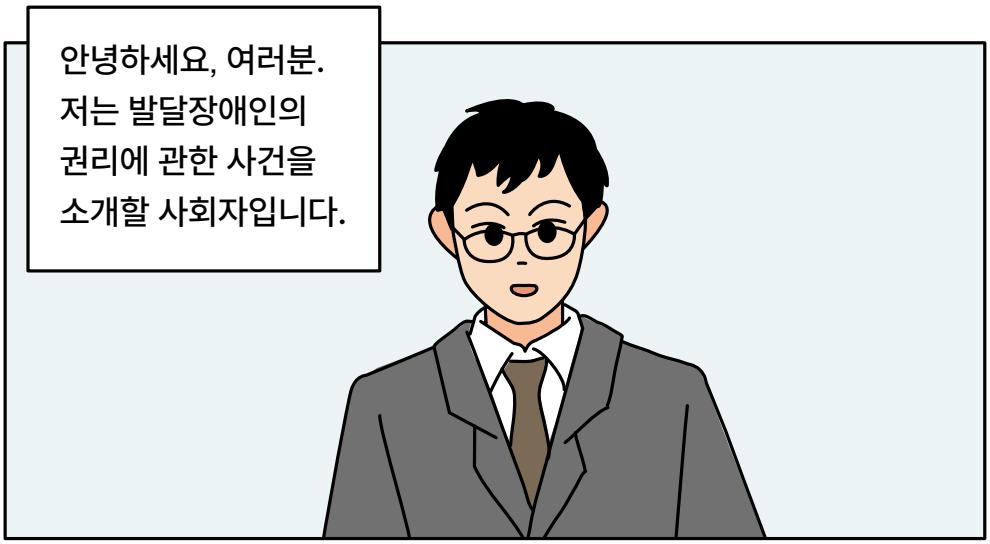
단어 더 알아보기

구속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감옥 등에 가두는 것.

체포 경찰 등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잡는 것.

항소 첫 번째 재판(1심 재판) 후 재판의 결과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다시 재판을 요청하는 것.

만화로 보는 결정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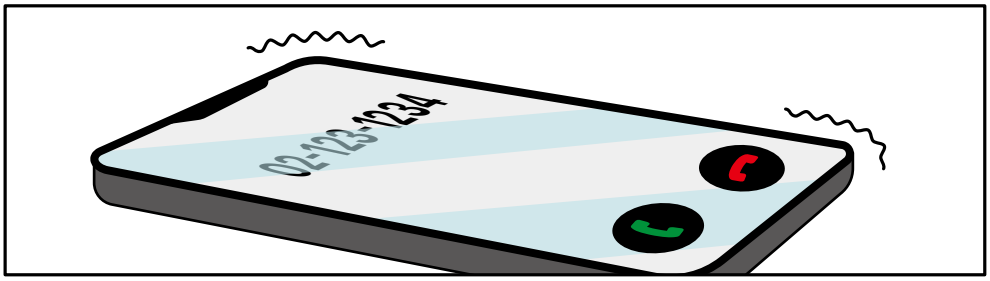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사건을
소개할 사회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경찰 조사를
받아 본 적이 있나요?
평소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요.

이번 이야기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아
경찰 조사를 받은
박한국 씨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발달장애인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사건이 있던 날, 박한국 씨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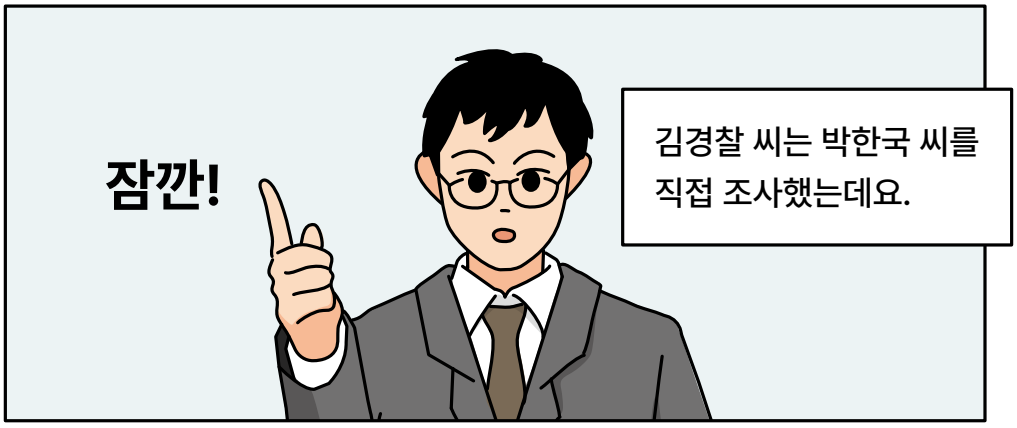


경찰서
저… 조사 받으라는
전화를 받고 왔습니다.
박한국 씨? 제가
전화드린 김경찰입니다.
김경찰
이쪽에 앉으시죠.

박한국 씨, 신분증 주십시오.

음… 발달장애인이네. 보이스피싱은 빠르게 조사하는 게
중요한데. 전담사법경찰을 부르면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복지카드
박 한 국
7890123
2000. 1. 12.
서울특별시 OO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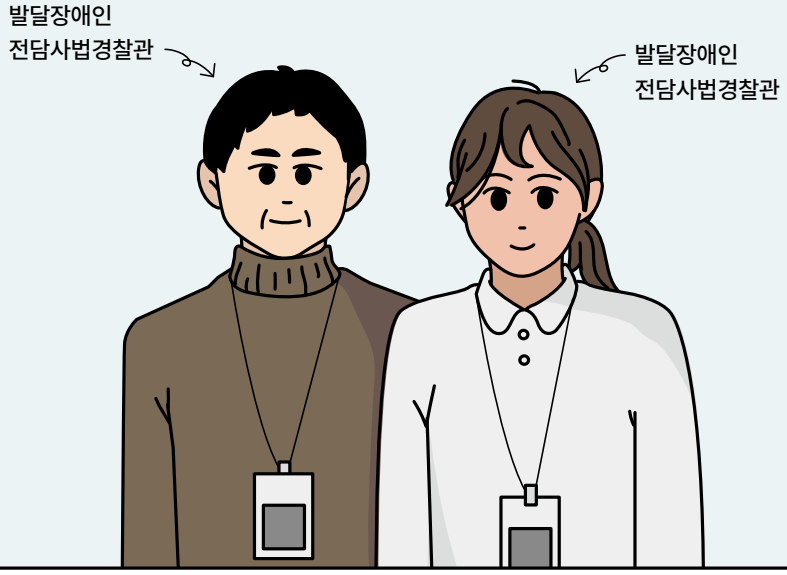
박한국 씨는 내 말을 이해하고
대답도 잘 하셔서 대화가 잘 될 것 같아.
나도 전에 발달장애인과
소통하는 방법을 교육받은 적이
있으니까 그냥 내가 직접 조사하자.



발달장애인이 범죄 피해자나 피의자가 되었을 때는
발달장애인 전담사법경찰관이 조사와 수사를 담당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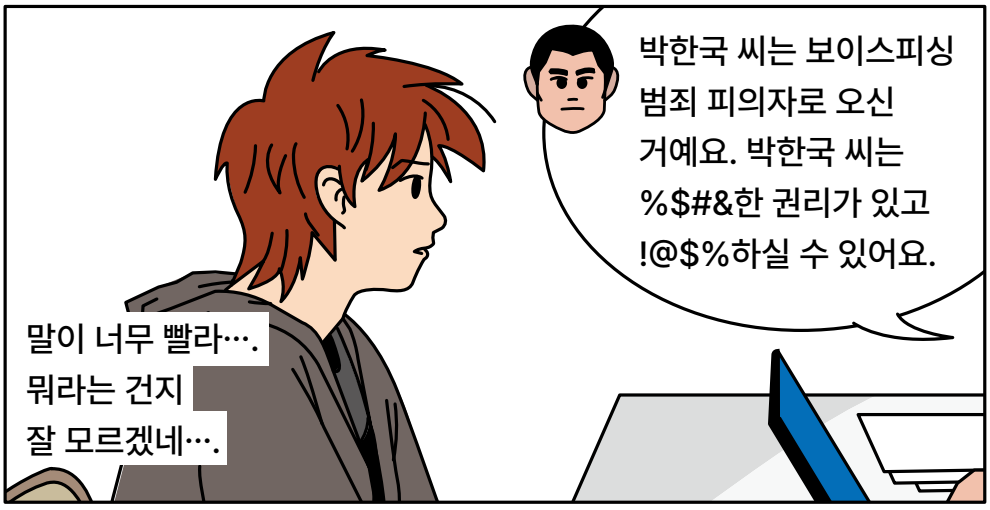
발달장애인 전담사법경찰관은
발달장애인을 잘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경찰관입니다.

하지만 김경찰 씨는 발달장애인 전담사법경찰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 침해 : 어떠한 피해를 주는 것.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할 때 '권리를 침해당했다'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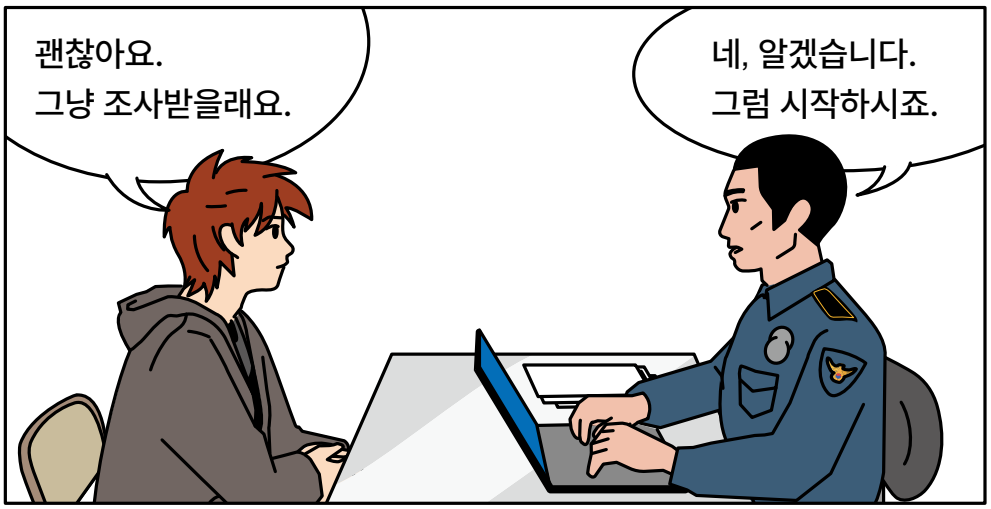
권리를 지키지 않은 일은 또 있었습니다.


박한국 씨는 보이스피싱 범죄 피의자로 오신 거예요. 박한국 씨는 %$#&한 권리가 있고 !@$%하실 수 있어요.
말이 너무 빨라….
뭐라는 건지 잘 모르겠네….

박한국 씨, 신뢰관계인을 부를 수 있는데요. 부를 사람 있습니까?

부모님은 19살 때부터
연락이 안 돼서
못 부르고….
사회복지사라도
불러도 되나?
경찰한테 부탁해도
되나 모르겠네….
분위기도 좀 무섭고.

아무도 안 부를래요.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물어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조사장면 영상 촬영에는
동의하시나요?


괜찮아요.
그냥 조사받을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작하시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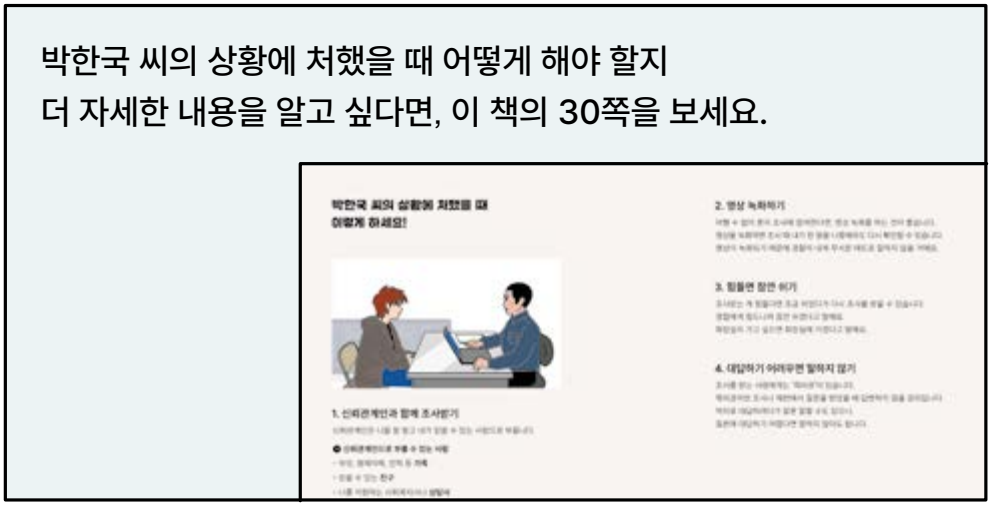
박한국 씨 같은 발달장애인을 조사할 때는 신뢰관계인이 함께 조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박한국 씨는 혼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신뢰관계인은 조사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지요.

만약에 박한국 씨처럼 주변에 부를 사람이 없다면,
경찰에게 신뢰관계인을 연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답니다.

발달장애인 전담사법경찰관에게
조사를 받고, 조사를 받을 때
신뢰관계인이 함께 참여하는 것은
장애인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김경찰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교육을 받고,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진정 결과를 다른 경찰관들에게도
알렸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박한국 씨의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이 책의 30쪽을 보세요.
박한국 씨의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세요!
1. 신뢰관계인과 함께 조사받기
2. 영상 녹화하기
3. 힘들면 참관 하기
4. 대답하기 어려우면 말하지 않기

쉬운 글로 보는 결정례

<만화로 보는 결정례>를 본 후 더 자세한 사건 내용이 궁금하다면 읽어 보세요.

사회자 안녕하세요. 박한국 씨, 김경찰 씨. 박한국 씨가 김경찰 씨에게 경찰 조사를 받으며 인권을 **침해**[→]받아서 진정을 하셨는데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 보시죠. 박한국 씨, 처음에 어떻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나요?

→ 침해 : 어떠한 피해를 주는 것.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할 때 '권리를 침해당했다'라고 한다.

박한국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보이스피싱**[→]사기를 쳐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요. 당황하고 긴장됐지만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 보이스피싱 :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속여서 돈을 빼앗는 사기.

사회자 김경찰 씨, 박한국 씨를 경찰서로 부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김경찰 박한국 씨가 일하고 있는 곳은 보이스피싱 사기업체였습니다. 박한국 씨는 그곳에서 피해자들의 현금을 모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통해 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경찰서로 불렀습니다.

박한국 저는 그런 일 하는 곳인줄 몰랐습니다! 일부러 사기 친 게 아니에요.

사회자 네, 그러시군요.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 보시죠. 김경찰 씨는 박한국 씨를 직접 조사했나요?

김경찰 맞습니다. 제가 직접 조사했어요.

사회자 제가 알기로 발달장애인을 조사할 때는 **발달장애인 전담사법경찰관**→이 진행해야 하는데요. 김경찰 씨는 발달장애인 전담사법경찰관이신가요?

→ 발달장애인 전담사법경찰관 : 발달장애인이 범죄의 피해자나 피의자가 되었을 때 조사와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 발달장애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김경찰 아… 저는 발달장애인 전담사법경찰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전에 발달장애인을 조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어서 제가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한국 씨는 대화할 때 별로 어려움이 없어 보였거든요.

사회자 그건 김경찰 씨의 생각 아닐까요? 발달장애인 전담사법경찰관이 조사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김경찰 씨가 직접 조사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김경찰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제가 직접 조사한 것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건을 빨리 해결해야 하거든요.

사회자 그래도 경찰 조사를 받는 발달장애인에게 권리가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네요.

김경찰 그 사실은 저도 인정합니다. 조사 후에 저희 경찰서에서 발달장애인법을 어겼으니 앞으로 주의하라는 경고를 받고, 교육도 받았습니다.

꼭 기억할 나의 권리

발달장애인은 조사를 받을 때 발달장애인을 잘 이해하는
발달장애인 전담사법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발달장애인 전담사법경찰관에게
조사를 받고 싶다고 말합시다.

사회자 박한국 씨는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김경찰 씨는 박한국 씨가 대화에 어려움이 없어 보였다고 말했는데요.

박한국 혼자 조사를 받아서 긴장되고 겁이 났어요. 사실 **국선변호사**→를 불러서 조사에 함께 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 국선변호사 : 일반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나라에서 지원하는 변호사.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소득이 적은 경우에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사회자 이유가 무엇인가요?

박한국 경찰에게 변호사를 부를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조사를 빨리 받으러 오라고 했어요. 피해자가 우선이라고 하면서요. 변호사를 구할 돈으로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게 낫다고 했어요.

김경찰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변호사를 부를 수 있다고 안내도 했습니다.

사회자 두 사람의 이야기가 서로 다르네요. 박한국 씨는 조사할 때 왜 혼자 있었나요? **신뢰관계인**→이 함께 조사에 참여했다면 좋았을 텐데요.

→ 신뢰관계인 : 조사 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도움을 주는 사람. 마음을 안정시키고 의사소통하는 과정을 돕는다.

김경찰 박한국 씨를 조사하기 전에 신뢰관계인이 필요한지 물어봤지만, 박한국 씨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박한국 경찰이 제게 가족이라도 부를 사람이 있으면 부르라고 했는데요. 부모님과는 19살 이후로 연락이 안 되어서 주변에 부를 사람이 없었어요. 경찰이 사회복지사라도 불러 주면 좋았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경찰서의 분위기가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어요.

사회자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 어떤 권리가 있는지는 안내를 받았나요?

→ 피의자 :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아 조사를 받는 사람.

박한국 네. 그런데 말이 너무 빨라서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경찰이 조사 장면을 영상으로 찍을 거냐고 물어봤는데, 그렇게 하면 조사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집에 가는 버스를 놓칠 것 같아 싫다고 했어요.

김경찰 박한국 씨는 제가 하는 질문을 잘 이해하고 대답했습니다. 박한국 씨가 조사 중에 자신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말하겠다고 해서 신뢰관계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박한국 경찰의 질문에 제가 대답을 했는데, 경찰이 제가 한 대답이 잘 맞지 않는다며 이러면 판사가 제 말을 거짓말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냥 제가 하는 일이 불법인 것 같다는 의심이 들었다고 인정해서 **형량**→을 줄이는 게 낫다고 했어요.

→ 형량 : 법원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내리는 벌의 무게나 기간. 예를 들어 징역 5년, 벌금 5백만 원 같은 것이 형량이다.

김경찰 이런 말도 한 적이 없습니다.

사회자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하지만 박한국 씨와 같은 발달장애인을 조사할 때는 신뢰관계인이 함께 조사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입니다.

→ 정당한 편의 :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일상을 누리기 위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지원이나 도움. 발달장애인에게 쉬운 정보 자료를 제공하는 일 등을 말한다.

김경찰 네, 주의하겠습니다.

사회자 만약에 박한국 씨처럼 주변에 부를 사람이 없다면, 경찰에게 신뢰관계인으로 부를 사람을 연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답니다.

박한국 그렇군요. 그때는 왠지 요청하기가 어려웠는데, 신뢰관계인을 부르는 것은 제 권리라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꼭 기억할 나의 권리

발달장애인은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신뢰관계인**과 함께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의 말이 이해되지 않거나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울 때 신뢰관계인의 지원을 받습니다.

진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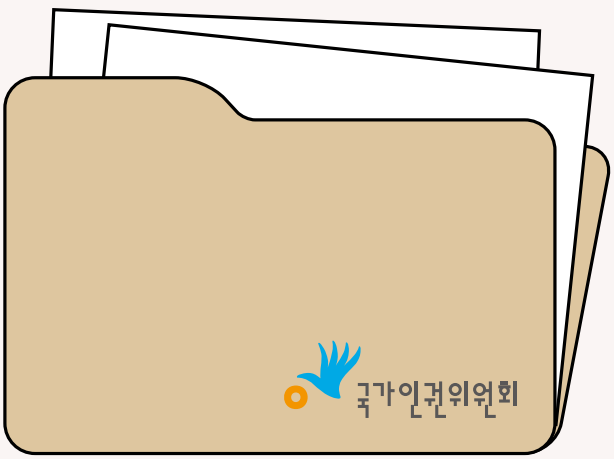
박한국 씨는 발달장애인입니다.

발달장애인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발달장애인 전담사법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김경찰 씨는 발달장애인 전담사법경찰관이 아니고, 발달장애인 전담사법경찰관에게 이 사건을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김경찰 씨가 박한국 씨에게 신뢰관계인을 부르라고 했지만,
박한국 씨는 부를 사람이 없어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김경찰 씨는 박한국 씨가 **신뢰관계인을 부를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관 김경찰 씨는 발달장애인 박한국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교육을 받고,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진정 결과를 다른 경찰관들에게도 알리길 바랍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법

법의 내용은 이해하기 쉽게 바꾸어 담았습니다.
원래의 내용이 궁금하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보세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

이유 없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행동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다. 이런 행동은 법으로 금지한다.

제26조 제6항

사법기관(경찰, 검사, 법원 등)이 사건에 관련이 있는 사람을 조사할 때 그 사람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라면,
조사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 주어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제13조

검찰과 경찰은 발달장애인을 조사할 때 발달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 '발달장애인 전담사법경찰관'이 조사하게 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5항

피의자가 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때 신뢰관계인을 조사에 함께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박한국 씨의 상황에 처했을 때 이렇게 하세요!

1. 신뢰관계인과 함께 조사받기

신뢰관계인은 나를 잘 알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릅니다.

❶ 신뢰관계인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

- 부모, 형제자매, 친척 등 **가족**
- 믿을 수 있는 **친구**
- 나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사나 **상담사**
-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나를 지원하는 **교사**
- 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나 **법률 지원 전문가**

❷ 신뢰관계인으로 부를 사람이 없는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직접 연락하거나
경찰에게 연락해 달라고 요청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2. 발달장애인 전담사법경찰관 요청하기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발달장애인 전담사법경찰관에게
조사를 받고 싶다고 말합니다.

만약 발달장애인 전담사법경찰관이 없는 경우
전담경찰관이 있는 날 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봅시다.

만약, 내가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신뢰관계인뿐만 아니라
'진술조력인'이 함께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이란,
아동·청소년, 발달장애인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조사나 재판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람입니다.

3. 영상 녹화하기

어쩔 수 없이 혼자 조사에 참여한다면, 영상 녹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을 녹화하면 조사 때 내가 한 말을 나중에라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녹화되기 때문에 경찰이 내게 무서운 태도로 말하지 않을 거예요.

4. 힘들면 잠깐 쉬기

조사받는 게 힘들다면 조금 쉬었다가 다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게 힘드니까 잠깐 쉬겠다고 말해요.
화장실이 가고 싶으면 화장실에 가겠다고 말해요.

5. 대답하기 어려우면 말하지 않기

조사를 받는 사람에게는 '묵비권'이 있습니다.
묵비권이란 조사나 재판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억지로 대답하려다가 잘못 말할 수도 있으니,
질문에 대답하기 어렵다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결정례

원래 결정례가 궁금하다면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찍어 보세요

발달장애인 직원에 대한 괴롭힘 사건

사건 번호 20진정0636500·20 진정0660200(병합)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카페에서 일하던 발달장애인 직원들은 집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다.

박팀장은 김슬기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메시지로 시험 문제를 내고 정해진 시간 안에 정답을 보내라고 시켰다.

직원이 문제를 틀리거나 실수를 하면 사람들 앞에서 무시하며 심한 말을 했고, 일할 때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김슬기는 박팀장이 자신을 차별하고 괴롭혔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을 진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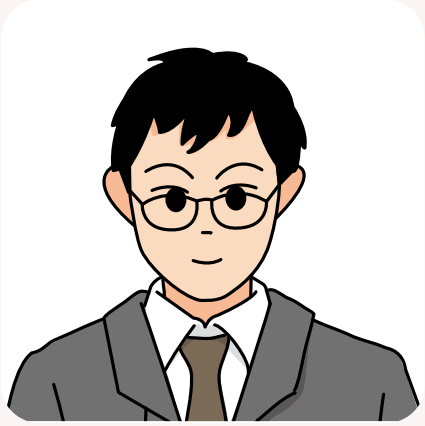
나오는 사람

김슬기

이 사건의 진정인이다.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는
발달장애인이다.

박팀장

이 사건의 피진정인이다.
김슬기 씨의 직장 상사이며,
발달장애인 직원들의 업무를
관리하는 일을 한다.



사회자

김슬기 씨와 박팀장 씨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듣고, 질문하고,
정리하는 사람이다.

알아 두면 좋은 단어

쉬운 정보
어려운 단어나 복잡한 설명 대신,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된 정보.
쉬운 글, 그림 등을 사용해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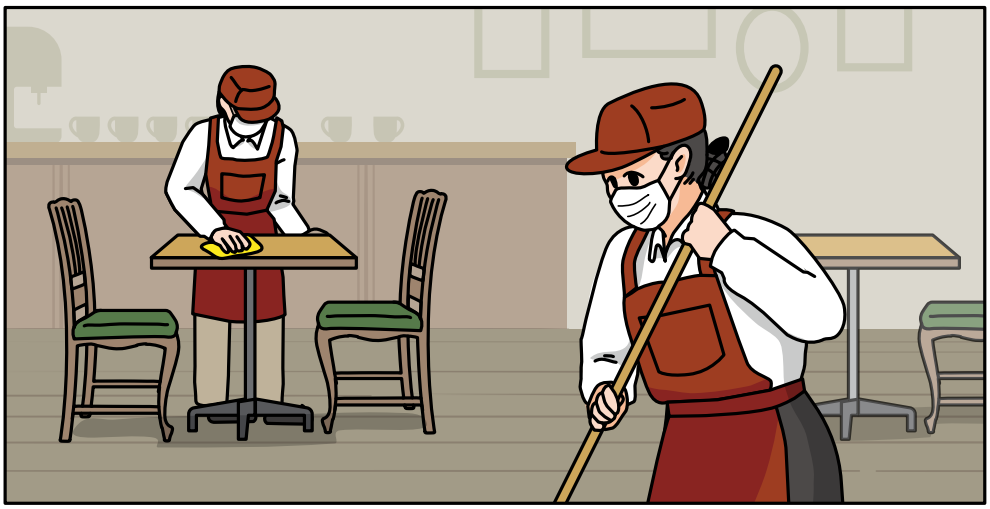
연차
직장에서 1년 동안 쓸 수 있는 휴가. 돈을 받으며 쉬는 날이다.

자기결정권
자신과 관련된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권리.

재택근무
직장에 가지 않고 집에서 일을 하는 것.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해 일을 한다.

정당한 편의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일상을 누리기 위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지원이나 도움. 발달장애인에게 쉬운 정보 자료를 제공하는 일 등을 말한다.

만화로 보는 결정례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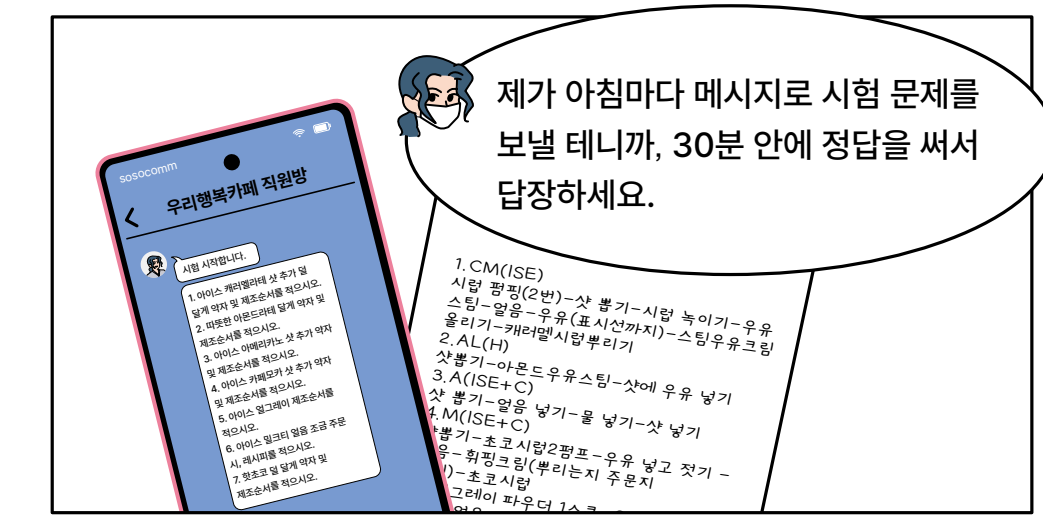
네, 안녕하세요.

다들 모여 봐요.
할 말이 있어요.

요즘 코로나가
심각해진 거 알죠?
당분간 카페를 열지 못해서
각자 집에서 일해야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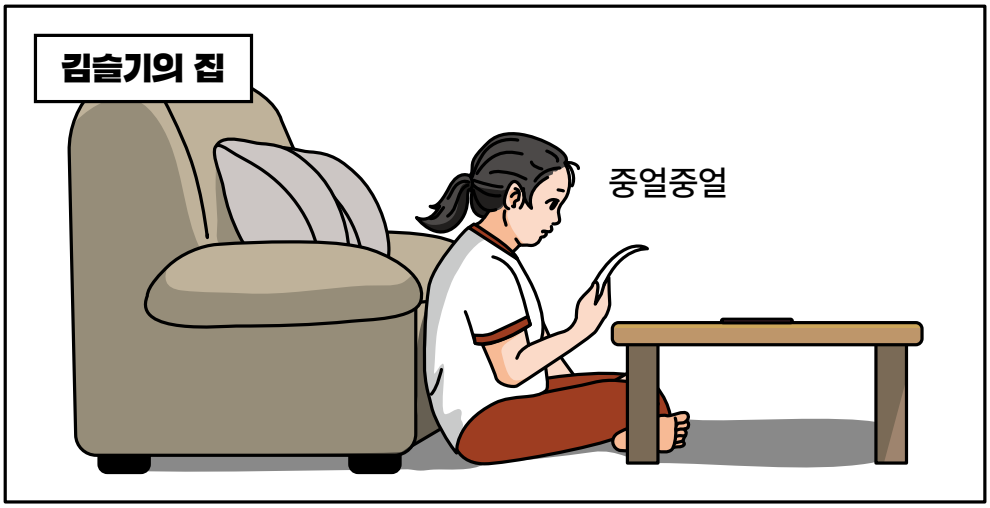
집에서
일하라고?
어떻게 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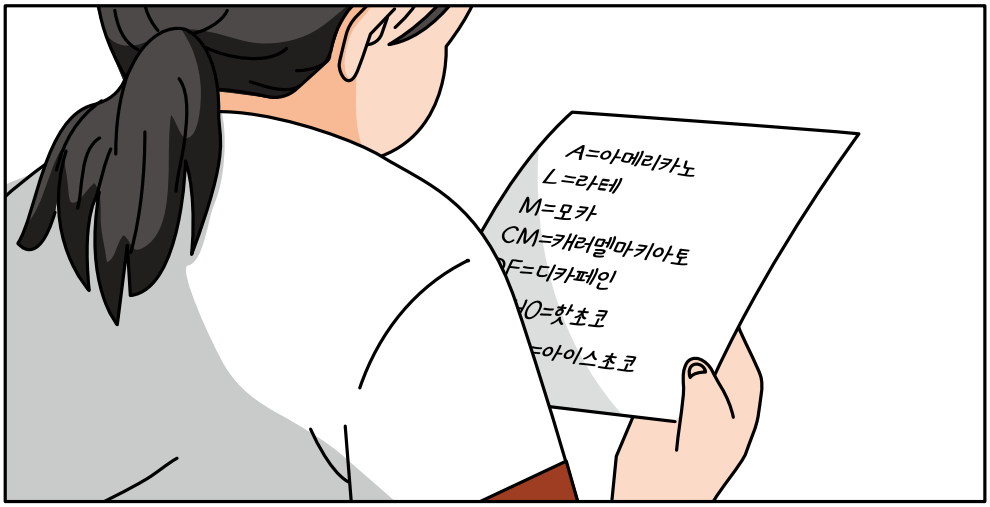
카페에 출근하지 않으니까
매일 시험을 볼 거예요.
집에서 일하는 동안
커피 만드는 법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제가 아침마다 메시지로 시험 문제를
보낼 테니까, 30분 안에 정답을 써서
답장하세요.
sosocomm
우리행복카페 직원방
시험 시작합니다.
1. CM(ISE)
시럽 펌핑(2번)-샷 뽑기-시럽 녹이기-우유
스팀-얼음-우유(표시선까지)-스팀우유크림
올리기-캐러멜시럽뿌리기
2. AL(H)
샷뽑기-아몬드우유스팀-샷에 우유 넣기
3. A(ISE+C)
샷 뽑기-얼음 넣기-물 넣기-샷 넣기
4. M(IS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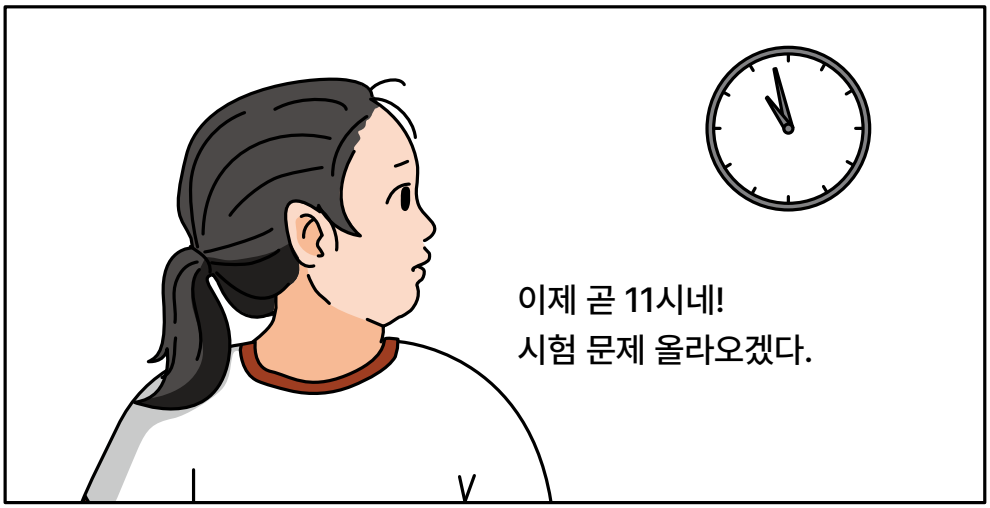
시험…
어려울까 봐 떨려.

특히 슬기 씨.
M
CV
커피 뚜껑에
영어 이름 적는 거
맨날 틀리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말고
이번에 제대로 외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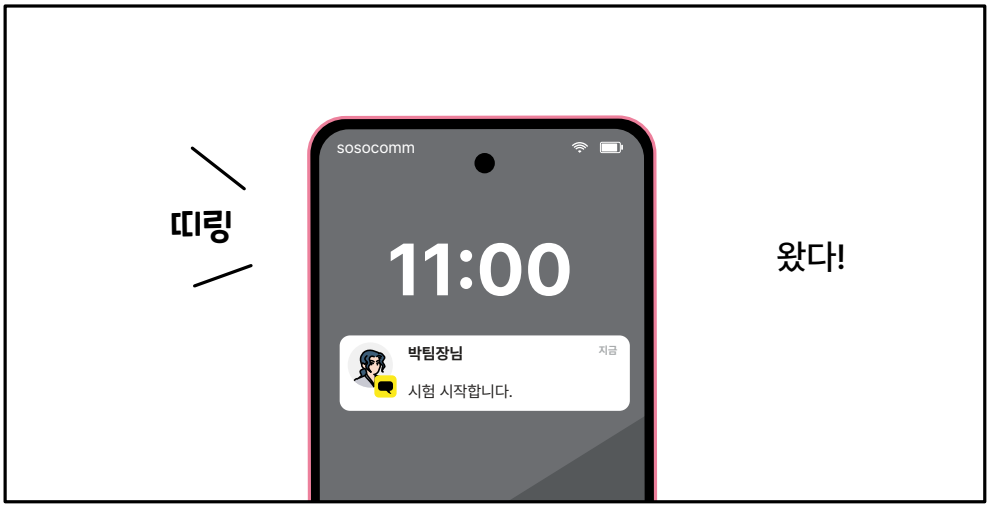

김슬기의 집
중얼중얼


A=아메리카노
L=라테
M=모카
CM=캐러멜마키아토
F=디카페인
O=핫초코
=아이스초코

잘 외워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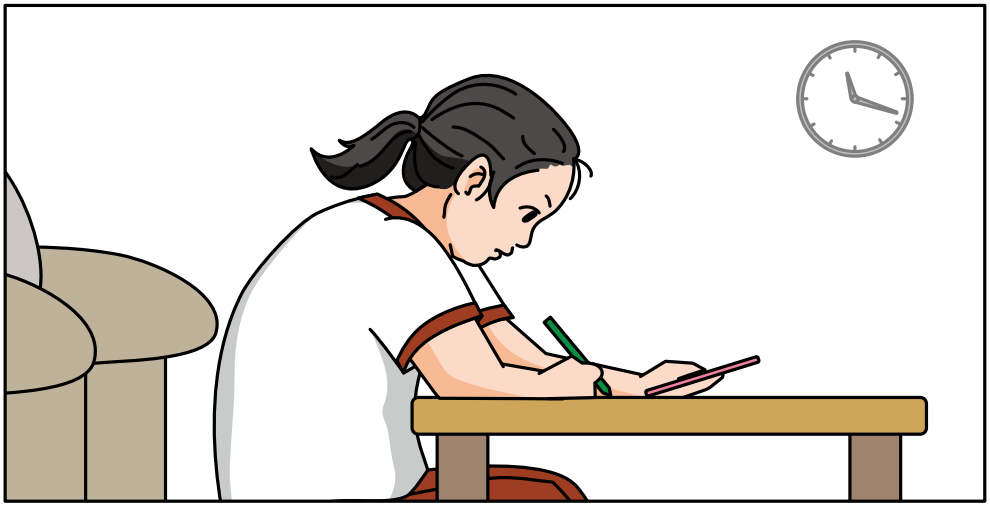

이제 곧 11시네!
시험 문제 올라오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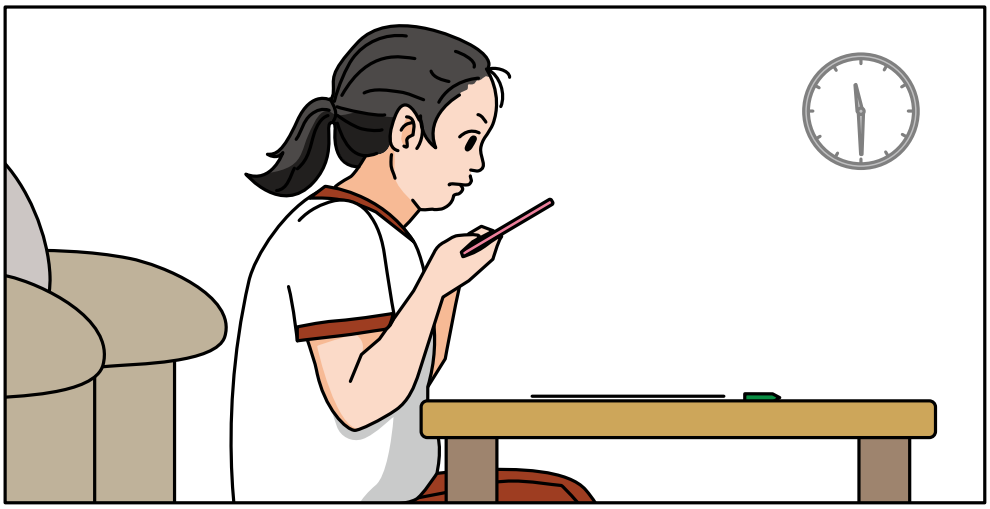
종이랑 연필이랑 지우개 준비하고!
10:58


띠링
sosocomm
11:00
박팀장님
지금
시험 시작합니다.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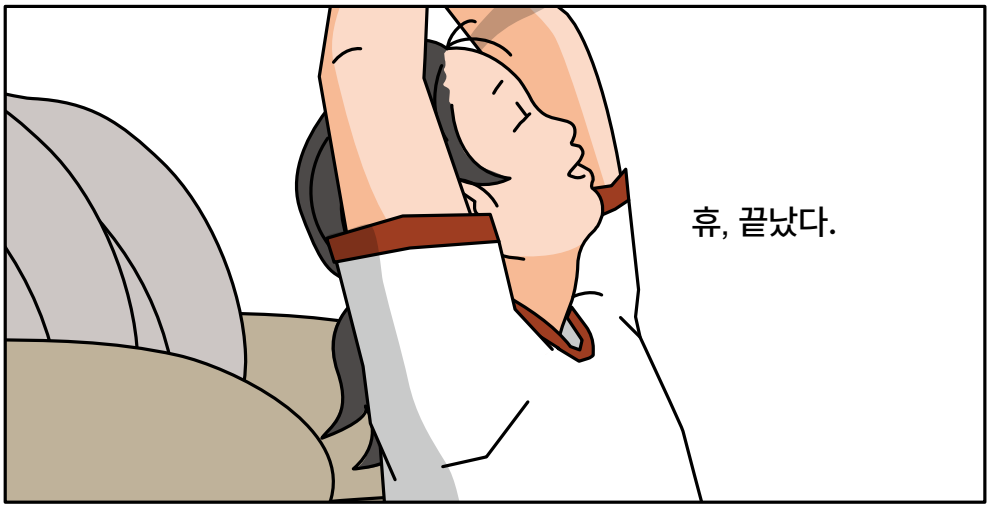
sosocomm
우리행복카페 직원방
시험 시작합니다.
1. 아이스 캐러멜라테 샷 추가 덜 달게 약자 및 제조 순서를 적으시오.
2. 따뜻한 아몬드라테 달게 약자 및 제조 순서를 적으시오.
3. 아이스 아메리카노 샷 추가 약자 및 제조 순서를 적으시오.
4. 아이스 카페모카 샷 추가 약자 및 제조 순서를 적으시오.
5. 아이스 얼그레이 제조 순서를 적으시오.
6. 아이스 밀크티 얼음 조금 주문

아, 영어 문제…
잘 풀 수 있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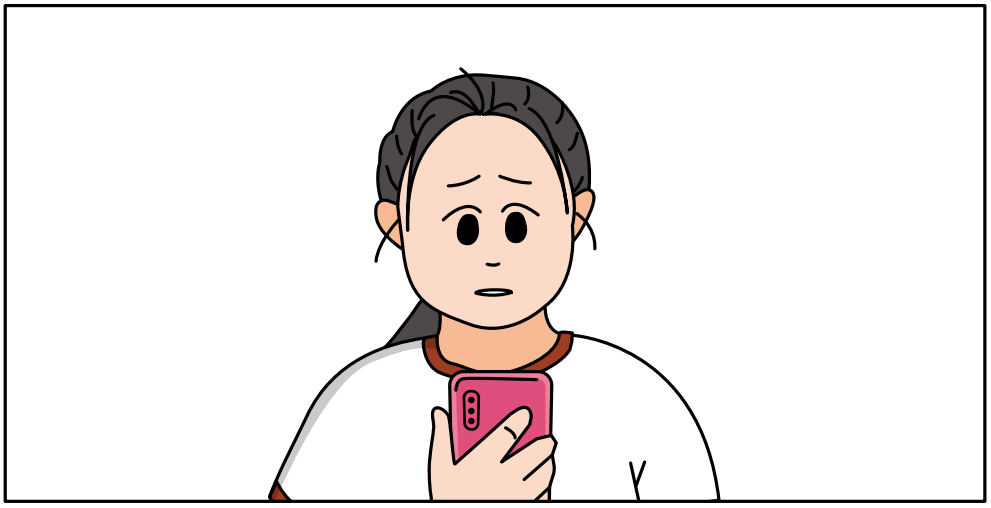




sosocomm
우리행복카페 직원방
다 풀었어요~
3월 20일
김슬기
1. CM(ISE)
시럽 펌핑(2번)-샷 뽑기-시럽 녹이기-우유 스팀-얼음-우유(표시선까지)-스팀우유크림 올리기-카라멜시럽뿌리기
2. AL(H)
샷뽑기-아몬드우유스팀-샷에 우유 넣기
3. A(ISE+C)
샷 뽑기-얼음 넣기-물 넣기-샷 넣기
4. M(ISE+C)
샷뽑기-초코시럽2펌프-우유 넣고 젓기 - 얼음-휘핑크림(뿌리는지 주문지 확인)-초코시럽


휴, 끝났다.

띠링
11:36
박팀장님
슬기씨...



sosocomm
우리행복카페 직원방
슬기 씨...
답이 틀렸잖아요.....
어떻게 이걸 틀려? 그 나이 먹고 부끄럽지도 않아? 정신 좀 차려요ㅎ. 다음에 또 이걸로 틀리기만 해 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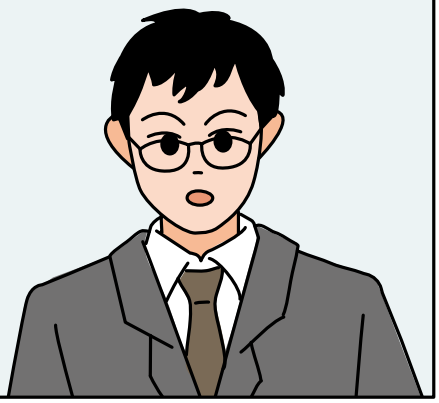
잘 맞히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다른 동료들이 다 보는 전체 대화방에서 이런 말을 듣다니…. 너무 부끄러워.

슬기 씨는 영어로 음료 이름 쓰는 일을 어려워했습니다.
M
C

만약 영어 대신 한글이나 그림을 사용했다면 어땠을까요?
모카
샷추가
캐러멜 라테
라테
모카
샷추가
캐러멜 라테
라테
모카
샷추가
캐러멜 라테
라테
모카
샷추가

슬기 씨는 자신의 일을 잘 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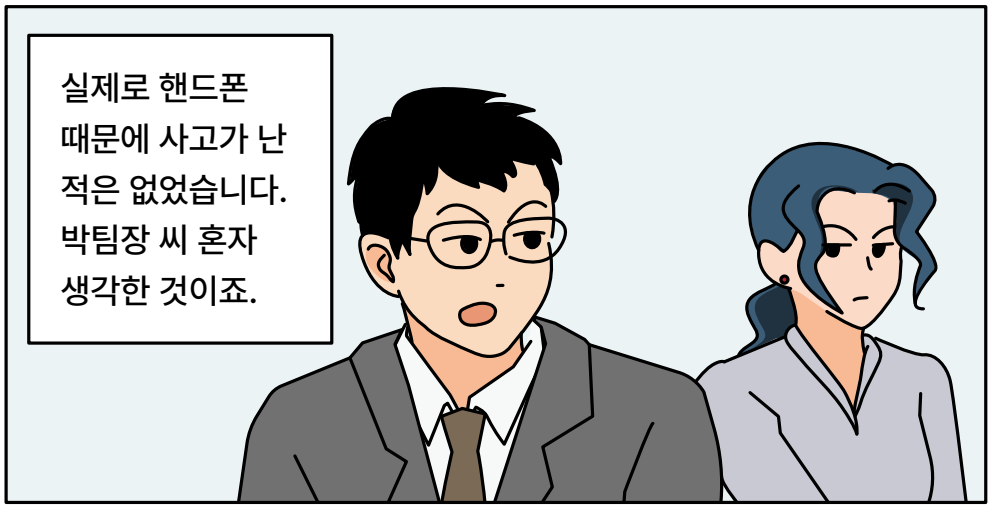
박팀장 씨는 발달장애인 직원에게 일하는 방법을 쉽게 설명하고 알려 줘야 합니다.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죠.



하지만 박팀장 씨는 일을 어려워하는 직원들에게 화내고 소리 질렀습니다. 이런 상황이 힘들어서 그만둔 직원도 있었죠.

직장에서 윗사람이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움은 주지 않으면서 일을 못한다고 무시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괴롭힘입니다.

또 박팀장 씨는 발달장애인 직원들이 일할 때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발달장애인에게는 자신의 일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그건 차별입니다.

김슬기 씨의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이 책의 58쪽을 보세요.

쉬운 글로 보는 결정례

<만화로 보는 결정례>를 본 후 더 자세한 사건 내용이 궁금하다면 읽어 보세요.

사회자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슬기 씨는 어떤 일을 하나요?

김슬기 저는 카페에서 음료를 만들고 청소해요.

사회자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김슬기 코로나로 **재택근무**→ 할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박팀장이 매일 아침 메시지로 시험 문제를 내면서, 30분 안에 답을 내라고 했거든요.

→ 재택근무 : 직장에 가지 않고 집에서 일을 하는 것.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해 일을 한다.

사회자 시험 문제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김슬기 음료 이름의 **영어 약자**→를 물어보거나, 음료 만드는 순서를 물어봤어요. 답은 손으로 직접 쓰고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했어요.

→ 영어 약자 : 긴 영어 단어나 문장을 짧게 줄여 쓴 것. 첫 글자만 따서 쓰는 경우가 많다.

사회자 음료 이름에 영어 약자가 있나요?

김슬기 네, 음료를 만들면 다른 음료와 헷갈리지 않게 뚜껑에 영어 약자를 써놔요. 예를 들면, 아몬드라테는 'AL'이라고 쓰고, 캐러멜마키아토는 'C'라고 써야 해요. 그런데 전 영어를 잘 모르거든요.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없어서 자꾸 문제를 틀렸어요.

사회자 문제를 틀리면 정답을 자세히 가르쳐 주었나요?

김슬기 아뇨. 팀장은 전혀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이 많은 채팅방에서 틀렸다고 무시했어요. "그 나이 먹고 부끄러운 줄 알아라", "정신 좀 차려라"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사회자 그런 말을 들으면 무척 속상했겠어요.

김슬기 저도 잘 하려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너무 긴장해서 그런지 자꾸 틀리더라고요.

사회자 혹시 시험을 너무 어려워하는 사람을 위한 도움은 없었나요?

김슬기 힘들면 그냥 알아서 **연차**→를 쓰고 하루 쉬라고 했어요. 문제를 많이 틀린 날에는 "문제 풀기 싫으면 연차 쓰고 쉬라니까!"라고 말한 적도 있어요. 출근하면 화내고 소리 질러서 동료들도 팀장을 무서워해요. 어떤 동료는 스트레스 받아서 직장을 그만뒀어요.

→ 연차 : 직장에서 1년 동안 쓸 수 있는 휴가. 돈을 받으며 쉬는 날이다.

사회자 김슬기 씨 혼자만 느낀 감정이 아니었군요. 그럼 박팀장 씨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회자 안녕하세요, 박팀장 씨. 카페에서 발달장애인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죠?

박팀장 네, 그렇습니다.

사회자 김슬기 씨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박팀장 제가 괴롭혔다고요? 실수를 자주 하길래 더 신경 쓰고 관리한 것뿐이에요. 일을 못하면 주변에 피해를 주니까 혼나야죠.

사회자 박팀장 씨는 발달장애인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알고 있나요?

박팀장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들은 적은 있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자 발달장애인은 일할 때 **정당한 편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슬기 씨가 영어를 어려워하면 한글이나 그림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 직원들에게 **쉬운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면 주어진 역할을 훨씬 더 잘 할 수 있었겠지요.

→ 정당한 편의 :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일상을 누리기 위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지원이나 도움. 발달장애인에게 쉬운 정보 자료를 제공하는 일 등을 말한다.

↘ 쉬운 정보 : 어려운 단어나 복잡한 설명 대신,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된 정보. 쉬운 글, 그림 등을 사용해 만든다.

박팀장 그런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사회자 당신은 팀장이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직원들의 권리를 알고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알지 못해서 일할 때 필요한 지원을 해 주지 않았고, 오히려 직원들에게 화내고 소리 지르는 등 함부로 대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발달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입니다.

김슬기 사회자 님, 궁금한 게 있어요.

사회자 무엇이 궁금한가요?

김슬기 팀장이 일할 때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래도 되는 건가요? 팀장은 핸드폰을 쓰면서 발달장애인 직원들은 쓰지 못하게 했어요.

꼭 기억할 나의 권리

발달장애인은 직장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어요. 직장에서 윗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지원은 하지 않으면서 일을 못한다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다면 그것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이에요.

사회자 박팀장 씨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왜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나요?

박팀장 일할 때 방해가 되니까요. 발달장애인 직원들은 집중을 잘 못해서 핸드폰을 주면 게임을 하거나 카톡을 할 게 뻔해요. 그러다 뜨거운 물을 쏟아서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사회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박팀장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자 그렇다면 그건 박팀장 씨만의 생각 아닐까요? 핸드폰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쉴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요.

박팀장 음… 그런 방법은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사회자 발달장애인 직원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는 건 그들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다르게 대하고,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도록 막는 건 분명한 차별입니다.

→ 자기결정권 : 자신과 관련된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권리.

꼭 기억할 나의 권리

발달장애인에게는 **자신의 일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직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다르게 대한다면 그건 차별이에요.

진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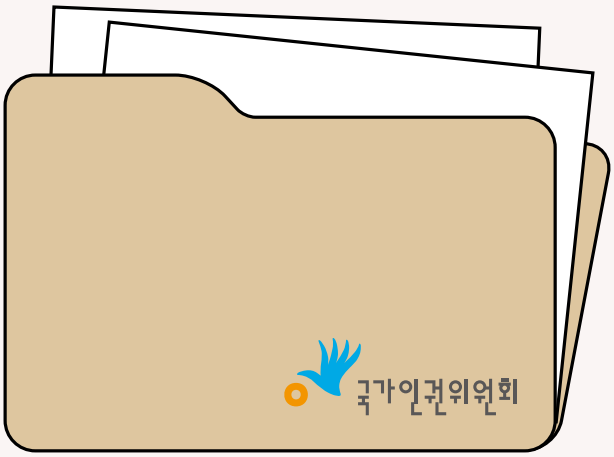
김슬기 씨는 발달장애인입니다.

발달장애인은 직장에서 **정당한 편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박팀장 씨는 김슬기 씨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일을 못한다고 무시했습니다.

또 발달장애인 직원들이 일할 때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다르게 대했습니다. 그러나 박팀장 씨는
장애인 직원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회사 대표는 다시는 이런 차별과 괴롭힘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권 교육을 하길 바랍니다.**

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는 다른 직장에서 장애인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길 바랍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법

법의 내용은 이해하기 쉽게 바꾸어 담았습니다.
원래의 내용이 궁금하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보세요.

헌법

제11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도 성별, 종교, 신분 때문에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

❶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에 대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

❷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똑같이 선택할 권리를 갖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제1항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람은 모집, 채용, 임금, 복리후생, 교육, 배치, 승진, 전보, 정년, 퇴직, 해고 과정에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제32조

장애인은 성별, 나이, 장애 유형, 장애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김슬기 씨의 상황에 처했을 때 이렇게 하세요!

1. 주변 사람에게 말하기

괴롭힘을 당할 때 참지 말고, 주변 사람에게 바로 말합니다.
다른 직장 상사, 동료, 보호자, 친구 등
나를 도와줄 사람에게 말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2. 괴롭힘당한 내용 기록하고 증거→ 모으기

→ 증거 :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사진, 영상, 녹음, 메시지, 일기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증거가 있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때 도움이 됩니다. 내용을 기록할 때는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❶ **날짜와 시간 :** 괴롭힘을 당한 날짜와 시간을 기록합니다.

❷ **장소 :** 괴롭힘을 당한 장소를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회의실, 복도 같은 장소를 적을 수 있어요.

❸ **가해자 :** 나를 괴롭힌 사람의 이름과 직책을 기록합니다. 직책은 사장, 팀장, 매니저 같은 역할을 뜻합니다.

❹ **목격자 :** 내가 괴롭힘당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적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증인**[→]이 될 수도 있어요.

→ 증인 : 어떤 일이 벌어지는 상황을 직접 본 사람. 법원이나 경찰서에서 사실을 밝힐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❺ **내용**

- 상대방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며 괴롭혔는지 자세히 기록합니다.
-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상담을 했다면 그 내용을 기록합니다.

3. 신고하기

전문 기관에 내가 괴롭힘당한 사실을 신고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찰서,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하고 증거를 제출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02-2125-9700**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02-6951-1790**
- **경찰서 ✆112**
- **고용노동부 ✆1350**

4. 전문가에게 상담받기

상담은 힘든 마음을 다스리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전화하거나 찾아가서 상담 서비스를 연결해 달라고 합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1800-5921

세 번째 결정례

원래 결정례가 궁금하다면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찍어 보세요

인감증명서 발급 거부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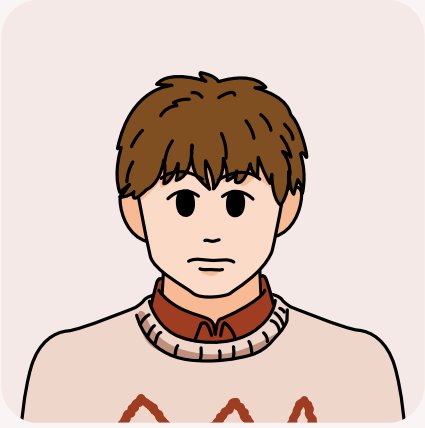
사건 번호 20진정0636500·20 진정0660200(병합)

최지호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했다.

최지호는 인감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지만, 공무원은 최지호가 인감증명서를
어디에 쓸지 정확히 말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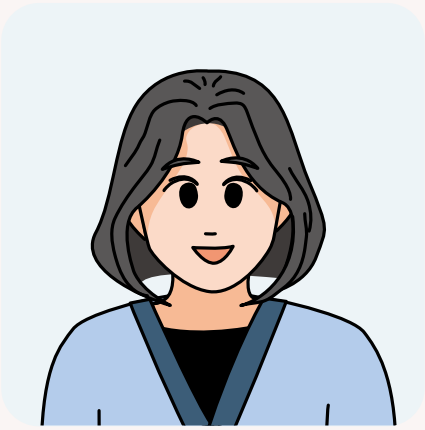
이에 최지호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을 진정했다.

나오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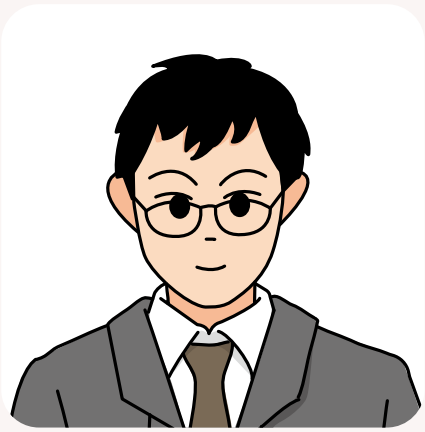
최지호

이 사건의 진정인이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로서,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지키는
단체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다.



공무원

이 사건의 피진정인이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류를
발급하는 일을 한다.



사회자

최지호 씨와 공무원 씨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듣고, 질문하고,
정리하는 사람이다.

알아 두면 좋은 단어

발급
필요한 서류나 증명서를 만들어 주는 것.

성년후견인 제도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성인을 지원하기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정하는 제도. 후견인이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지원하는 사람이다.

인감 도장
본인이라는 것을 알려 주는 도장. 중요한 계약이나 문서에 사용된다.

인감증명서
인감 도장이 본인의 것이 맞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공식 문서.

임원
조직이나 단체에서 중요한 일을 맡아 결정하고 관리하는 사람.

총회
조직이나 단체의 모든 사람이 모여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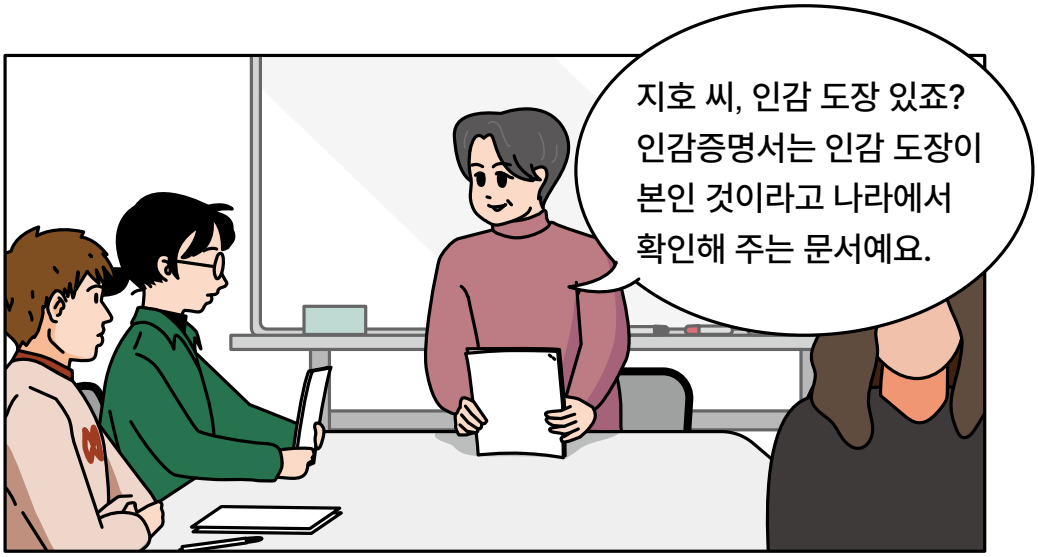
만화로 보는 결정례

건리 지킴이 회의
다음 회의 때는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하니까 가져오세요.
없으면 회의 참석이 어렵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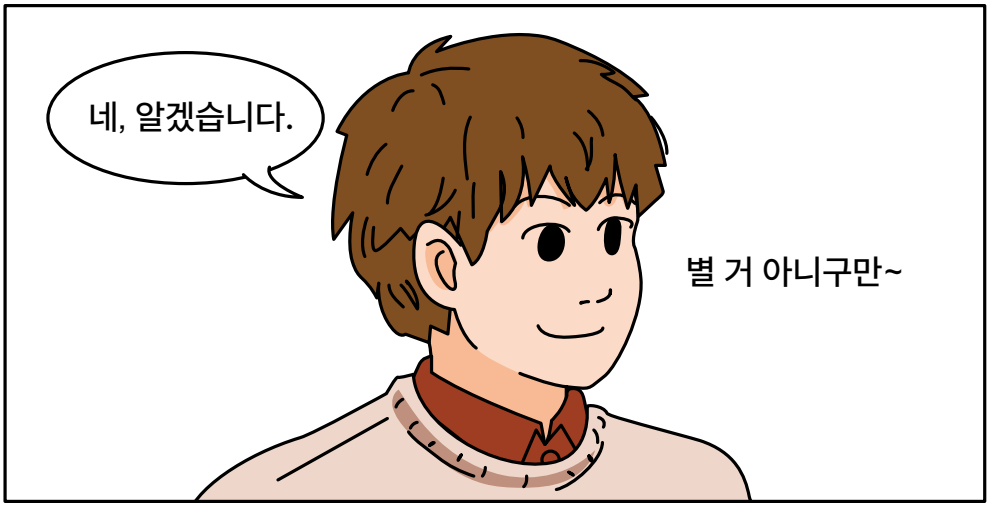
회의에 인감증명서는
왜 필요한 거죠?
평소에는
필요 없었는데.

다음 회의는 임원들이
참여하는 중요한
회의라서 그렇대!
아 맞아,
그렇댔지!

그럼 인감증명서는
어떻게 만들면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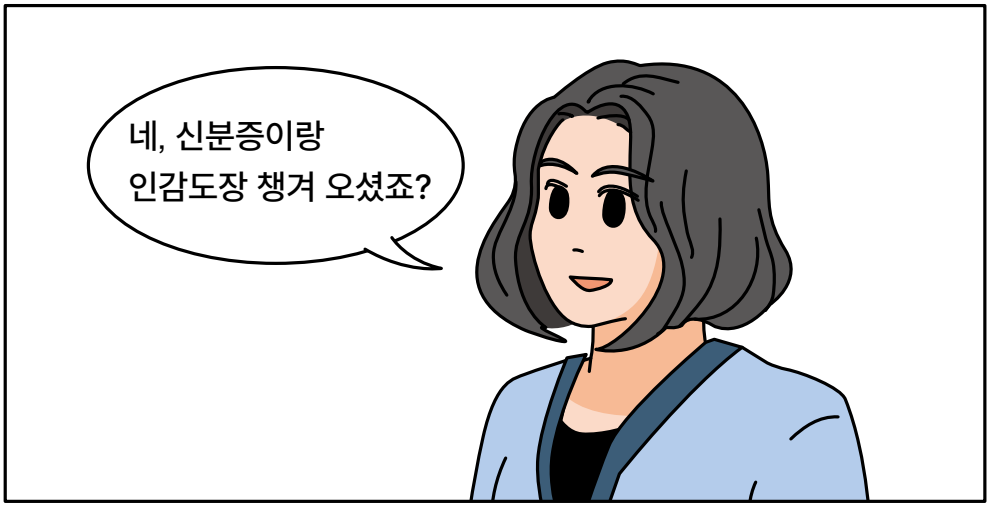

지호 씨, 인감 도장 있죠?
인감증명서는 인감 도장이
본인 것이라고 나라에서
확인해 주는 문서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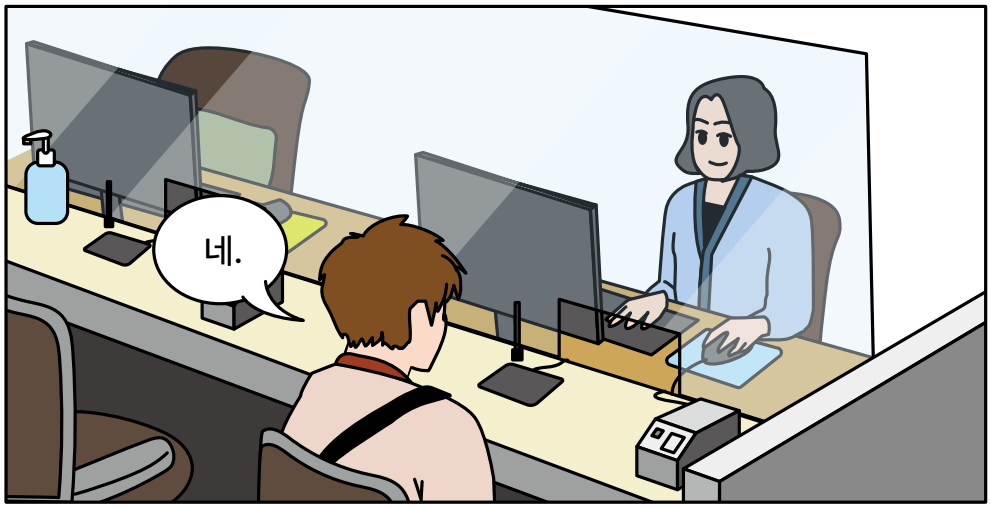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인감 등록 먼저 하고
인감증명서
발급받으면 돼요.
신분증이랑
인감 도장만 가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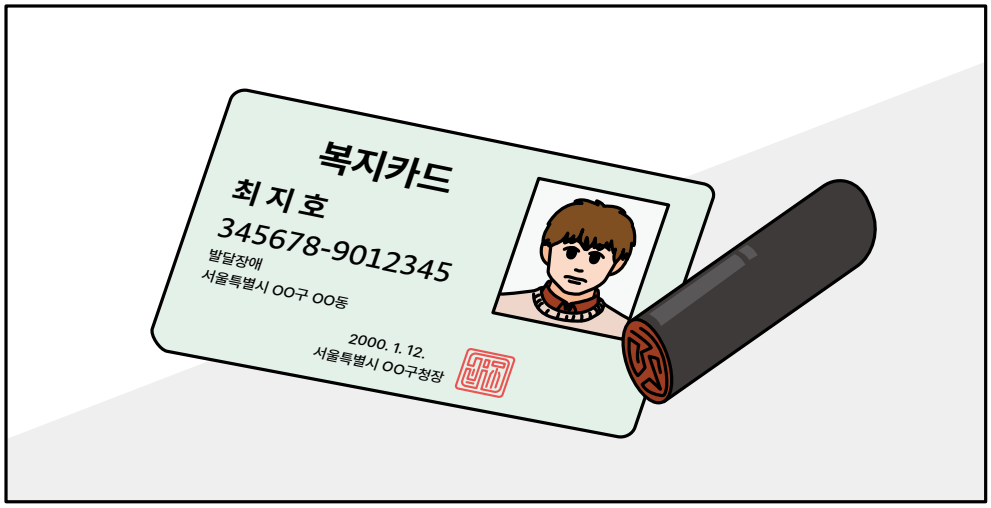

네, 알겠습니다.
별 거 아니구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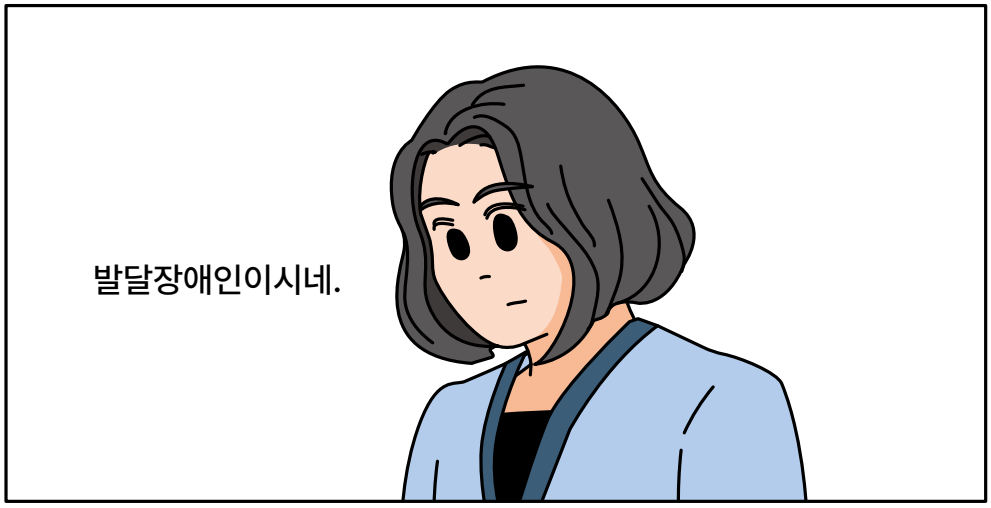
수연2동 행정복지센터

안녕하세요, 인감 등록하고
인감증명서 발급하려고요.


네, 신분증이랑
인감도장 챙겨 오셨죠?


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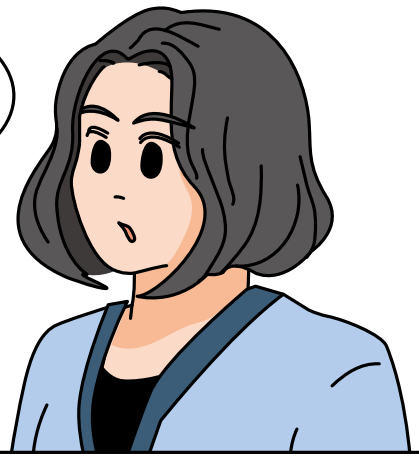

복지카드
최 지 호
345678-9012345
발달장애
서울특별시 OO구 OO동
2000. 1. 12.
서울특별시 OO구청장


발달장애인이시네.

어제 뉴스 보니 요즘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범죄가 많다고 하던데.

나쁜 사람에게 속아서 인감증명서를 받으시는 거면 어쩌지?
바로 발급했다가 혹시 큰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좀 해 봐야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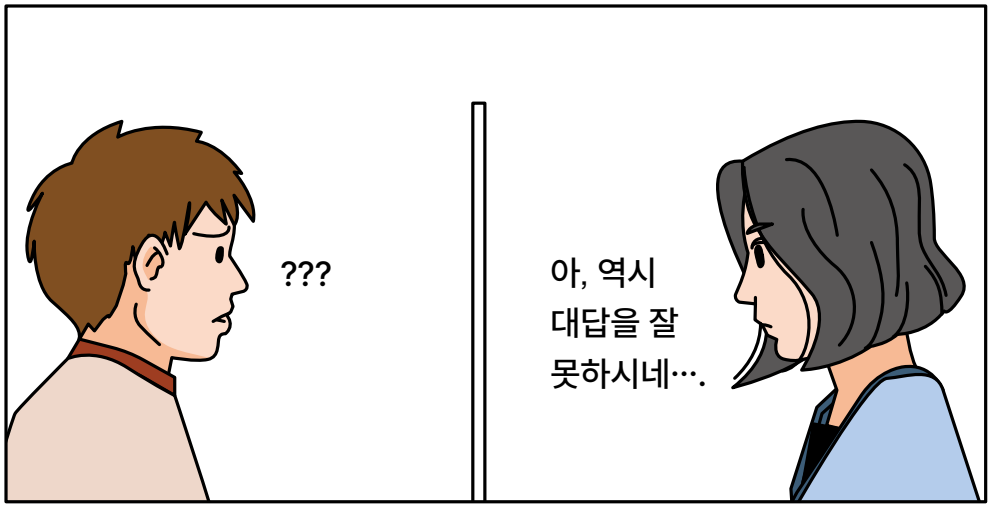
음… 고객님, 인감증명서는
왜 발급받으시는 거예요?



회의에 참석할 때 필요해서요.
회의에 쓰시는 거 맞죠?
네. 맞는데요.
왜 2번이나 물어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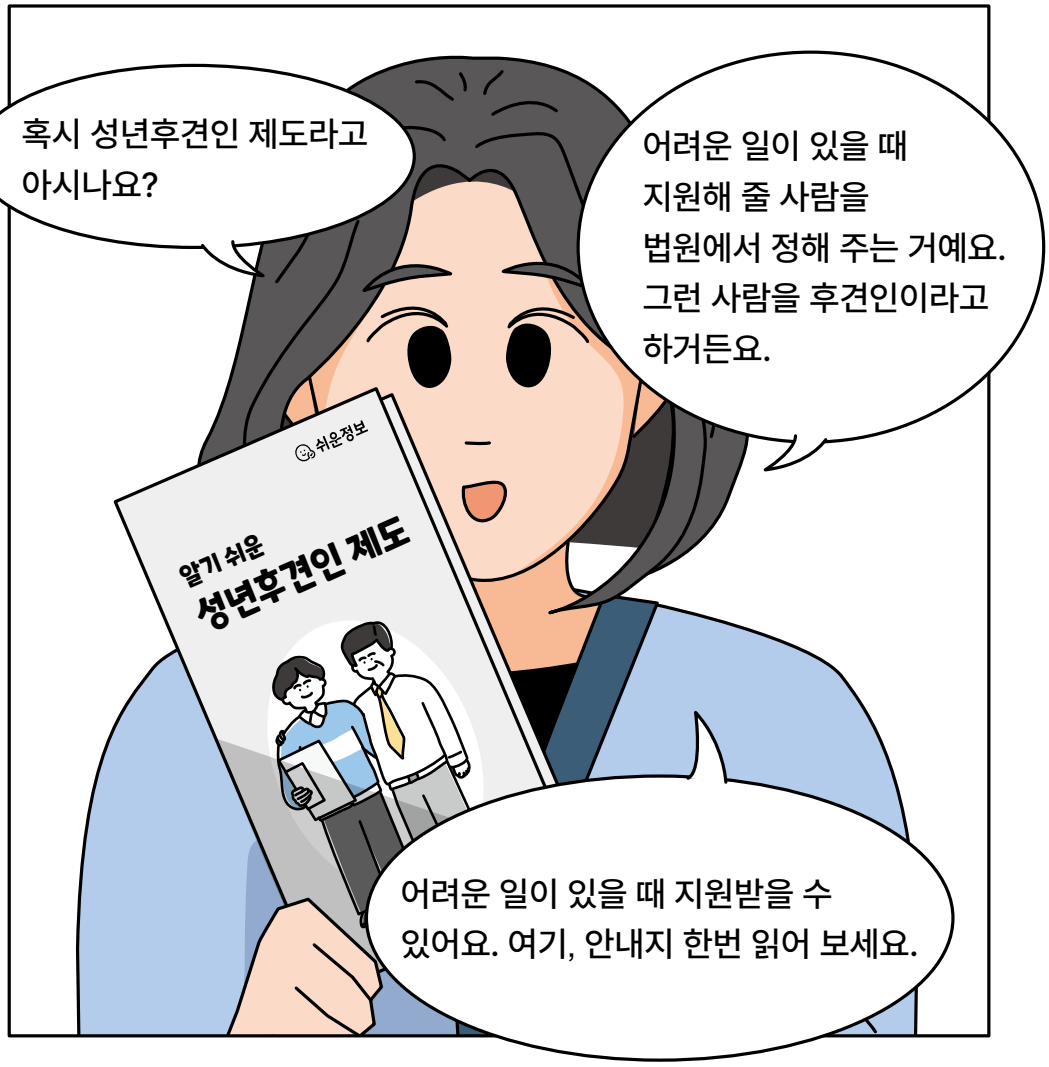
그런데 왜 회의에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요?
네?
인감증명서 떼는 거
간단하다 그랬는데.
이런 건 왜 물어보지?
회의에 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시냐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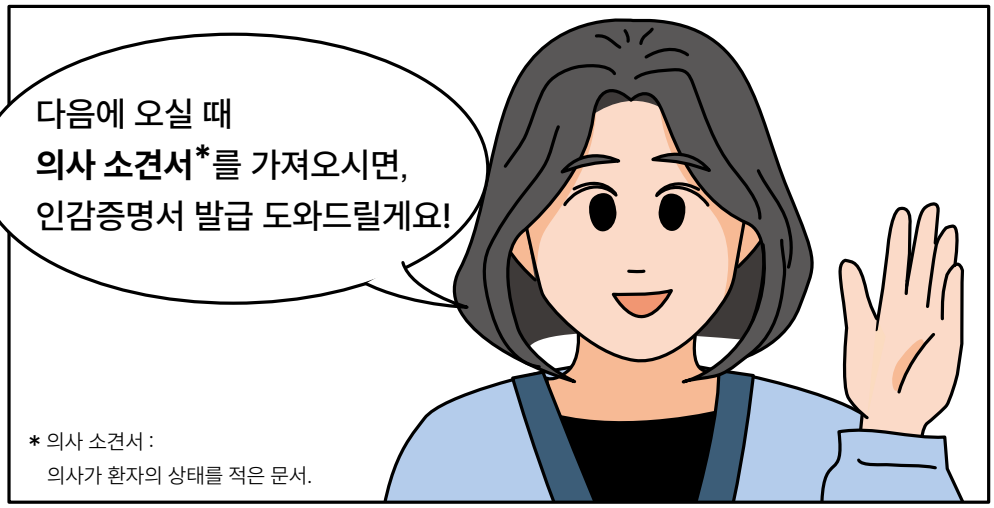
설명하기 어려운데
뭐라고 말해야 하지?
근데, 왜 자꾸
물어보는 거야.
날 의심하나?


???
아, 역시
대답을 잘
못하시네….

음, 고객님.
오늘 인감증명서 발급은
좀 어려울 거 같고요.

네? 아니, 왜….


혹시 성년후견인 제도라고 아시나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지원해 줄 사람을 법원에서 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후견인이라고 하거든요.
쉬운정보
알기 쉬운
성년후견인 제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지원받을 수 있어요. 여기, 안내지 한번 읽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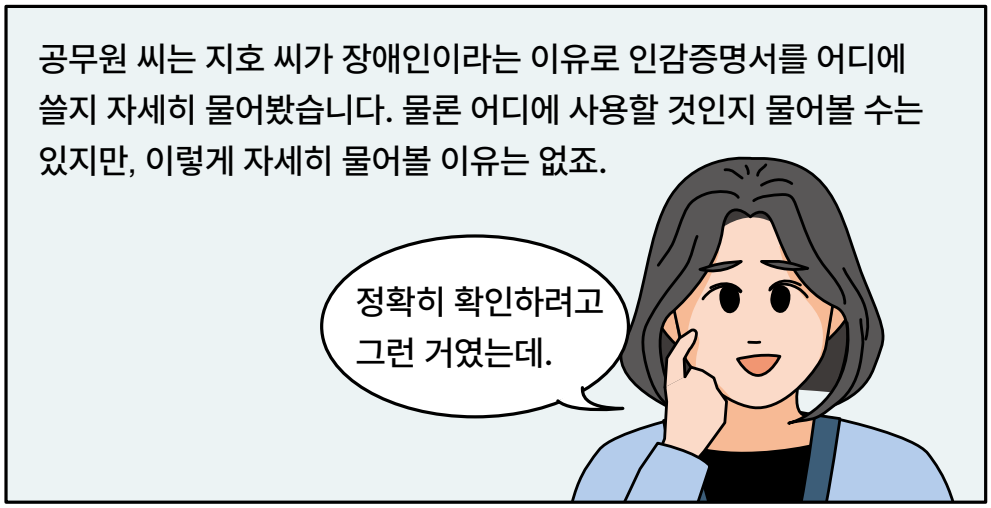

다음에 오실 때
의사 소견서*를 가져오시면,
인감증명서 발급 도와드릴게요!
* 의사 소견서 :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적은 문서.

수연2동 행정복지센터
아니, 대체 왜 인감증명서를
발급 안 해 주는 거야!

공무원 씨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행동했던 것 같군요.

하지만!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발급하겠다고 말하고,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도 분명히
말했다면 발급을 해 줘야 합니다.

지호 씨는 분명하게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해 주세요.


공무원 씨는 지호 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인감증명서를 어디에 쓸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물론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물어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자세히 물어볼 이유는 없죠.
정확히 확인하려고 그런 거였는데.

비장애인이라면 그렇게 자세히 물어봤을까요? 지호 씨가 발달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확인한 것이지요.
앗, 그렇네요….

이것은 장애인 차별입니다.
인감증명서를 어디에 쓸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 공무원 씨는 지호 씨에게 성년후견인 제도를 안내하셨는데요.
발달장애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성년후견인이나
의사 소견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런 것을 요청한다면
장애인 차별입니다.

최지호 씨의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이 책의 84쪽을 보세요.

쉬운 글로 보는 결정례

<만화로 보는 결정례>를 본 후 더 자세한 사건 내용이 궁금하다면 읽어 보세요.

사회자 최지호 씨와 공무원 씨 안녕하세요. 두 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최지호 공무원 씨가 서류를 **발급**→해 주지 않아서 꼭 참석해야 하는 회의에 못 가게 생겼어요!

→ 발급 : 필요한 서류나 증명서를 만들어 주는 것.

조사관 서류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나 보군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최지호 제가 **임원**→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있어요. 단체에서 이번에 **총회**→가 열리는데요. 이번 총회에서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인감증명서를 받으러 행정복지센터에 갔어요. 거기 가면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 임원 : 조직이나 단체에서 중요한 일을 맡아 결정하고 관리하는 사람.

→ 총회 : 조직이나 단체의 모든 사람이 모여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회의.

사회자 네, 인감증명서는 신분증과 **인감 도장**↘만 있으면 받을 수 있지요. 혹시 행정복지센터에 갔을 때 신분증이나 인감 도장을 깜빡 놓고 가셨나요?

↘ 인감증명서 : 인감 도장이 본인의 것이 맞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공식 문서.

↘ 인감 도장 : 본인이라는 것을 알려 주는 도장. 중요한 계약이나 문서에 사용된다.

최지호 아니요! 저는 준비물은 항상 잘 챙겨요. 인감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먼저 나라에 인감을 등록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챙겨 간 인감 도장과 신분증을 주면서 인감을 등록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했어요.

사회자 거기서 문제가 생겼군요.

최지호 담당하는 공무원이 제게 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회의에 참석하는 용도로 쓴다고 했어요. 근데 회의에 쓰는 거 맞냐고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때 기분이 좀 나빴어요. 제가 분명히 말했는데 다시 물어보니까요.

사회자 '내 말을 믿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드셨군요.

최지호 맞아요. 저를 의심하는 느낌 같아서 싫었어요. 근데 또 회의에 인감증명서가 왜 필요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대답하기도 싫고,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생각이 잘 안 나서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회자 네, 마음이 불편하셨겠어요.

최지호 결국 제가 그 대답을 안 했다고 인감 등록도 못하고 인감증명서도 못 받았어요. 근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신분증과 인감 도장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저는 다 챙겨 갔거든요. 왜 못 받은 걸까요? 이해가 안 돼요.

사회자 공무원 씨에게 한번 물어 보죠. 공무원 씨는 어떤 일을 하시죠?

공무원 저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감 관련한 서류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최지호 씨의 인감 등록과 인감증명서를 거부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이유가 뭐죠?

공무원 네, 최지호 씨가 인감 등록과 인감증명서를 요청하셨어요. 처음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같은 정보를 물어보니 잘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이유를 물어봤는데 잘 설명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성년후견인 제도**→를 안내하고, **의사 소견서**↘를 가져 오시면 인감 등록과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드리겠다고 안내를 했습니다.

→ 성년후견인 제도 :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성인을 지원하기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정하는 제도. 후견인이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지원하는 사람이다.

↘ 의사 소견서 : 환자의 건강 상태에 대해 적은 문서.

사회자 인감증명서를 받는 데 왜 성년후견인제도를 안내하고 소견서를 요청하신 건가요? 최지호 씨 말대로 인감과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요?

공무원 최지호 씨가 장애인이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최지호 씨가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워하는 걸 보고, 혹시 이 인감증명서가 나쁜 곳에 쓰일 수도 있어서 그것을 막기 위해 그렇게 안내한 겁니다.

사회자 공무원 씨는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안내했겠지만 이것은 장애인 차별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발급하고 싶다는 표시를 분명하게 한다면 발급을 해 주어야 합니다.

최지호 저는 분명하게 말했어요!

사회자 공무원 씨는 최지호 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인감증명서를 어디에 쓸 것인지 자세하게 물어봤습니다. 비장애인에게는 물어보지 않을 것을 최지호 씨에게 물어본 것이니까요. 이것은 장애인 차별입니다. 이런 이유로는 인감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최지호 성년후견인을 데려오라고 한 것도 조금 기분 나빴어요. 저는 다 큰 성인인데, '부모님 모셔 와!'라는 말을 들은 느낌이었거든요.

사회자 맞습니다. 발달장애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성년후견인이나 의사 소견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런 것들을 요청하면 장애인 차별입니다.

공무원 그렇게 생각하실 줄 몰랐어요. 제가 잘못했네요. 앞으로 주의할게요!

꼭 기억할 나의 권리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싶다고 분명히 말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가 어떻게 쓰이는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내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 인감증명서 발급을 거부한다면 권리를 침해당한 것입니다.

진정 결과

최지호 씨는 발달장애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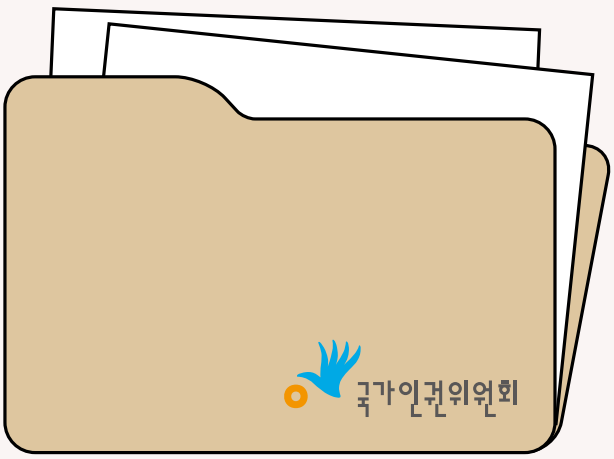
최지호 씨는 인감증명서를 받고 싶다고 말했으며, 그에 필요한 준비를 마쳤지만 공무원 씨는 인감증명서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의사 소견서를 가져오거나 성년후견인 제도를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는 곳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확인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비장애인과 다르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닌데 **의사 소견서를 가져오라고 하거나, 성년후견인 제도를 안내하는 것 역시 차별**입니다.

그러므로, **○○시장은 앞으로 ○○시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거부당하지 않도록, 진정 결과를 다른 공무원에게 알리길 바랍니다.**

또, **행정안정부장관은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장애인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 절차와 상관없는 것을 장애인에게 확인하지 말라는 내용을 추가하길 바랍니다.**

→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 : 인감과 서명에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는 절차와 규칙을 설명하는 안내서.



이 사건과 관련된 법

법의 내용은 이해하기 쉽게 바꾸어 담았습니다.
원래의 내용이 궁금하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보세요.

헌법

제11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도 성별, 종교, 신분 때문에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1항

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 필요한 사법·행정 절차,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발달장애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법)

제8조

❶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삶에 대한 것을 스스로 결정한다.

❷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결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제10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정책 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최지호 씨의 상황에 처했을 때 이렇게 하세요!

1. 서류 발급에 필요한 순서와 준비물 확인하기

서류를 발급받으러 가기 전에, 행정복지센터 등에 전화해서
어떻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 미리 확인해 놓습니다.

준비를 다 했는데도, 서류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면
'장애인 차별'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2. 국민신문고로 민원하기

민원이란, 나라에 필요한 일을 처리하거나
불편한 일을 해결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 신청'을 누르고 불편했던 일이나
차별받은 내용을 적습니다.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3. 발달장애인의 권리 주장하기

❶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❷ 나라에서는 발달장애인이 정당한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해하기 쉬운 정보와 같이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나 지원을 요청합니다.

❸ 내가 결정할 수 있는데 성년후견제를 이용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진정 신청하기

1. 어떤 상황에서 진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누군가 나를 차별하거나 나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진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관, 학교, 감옥, 보호소 같은 곳처럼 기관이나 단체가 나를 차별할 때도, 한 사람이 나를 차별했을 때도 진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법원의 판결을 받은 일이라면 진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누가 진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차별당한 사람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하기 어려우면 내 허락을 받고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해 줄 수도 있습니다.

진정을 접수하는 곳

전화 1331 (상담 시간 :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저녁 6시)

우편·방문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 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10층, 인권상담조정센터

팩스 02-2125-98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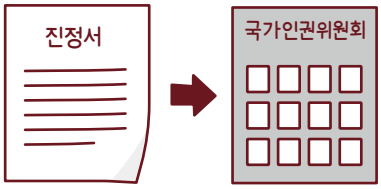
이메일 hoso@humanrights.go.kr

홈페이지 case.humanrights.go.kr

3. 진정 사건을 처리하는 순서

❶ 상담받기

국가인권위원회에 찾아가거나 전화해서
상담을 받습니다.



❷ 진정 접수하기

전화, 우편, 방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등으로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❸ 사건 조사하기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의 진정서를 확인하면
사건 담당 조사관이 조사를 시작합니다.

❹ 사건 해결하기

위원회가 회의를 열어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❺ 결과 안내하기

진정을 신청한 사람에게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문서로 알려 줍니다.

나가는 글

우리 위원회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차별 시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특히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의 중요 결정례를 제작·배포하여 장애인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이번 <쉬운 글과 만화로 보는 장애차별 결정례>는 발달장애인이 진정 사건의 피해자로 접수된 사례 중 사회적으로 개선이 시급하고, 발달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사례를 엄선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이번 결정례집에는 형사사법·행정 절차에서 발생한 차별 사례와 직장 내 괴롭힘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사건들을 포함하여,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만화와 쉬운 글 두 가지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감수 과정에 참여하여 자료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애인의 권리 의식을 높이고 차별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행동 요령을 포함하였으며,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관 기관 및 장애인단체에 배포하고, 발달장애인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장애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자료를 제작하며,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이번 결정례집이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차별 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쉬운글과 만화로 보는

장애차별 결정례

발행일	2024년 12월 10일
펴낸곳	국가인권위원회
편집·쉬운 글	김예림 신수연
만화·디자인	권소희
발달장애인 감수	피플퍼스트서울센터
ISBN	979-11-7214-052-6 03330

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자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공누리 제4유형의 조건 외에 이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 자료는 발달장애인 등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만드는 사회적기업

소소한소통 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쉬운 글과 만화로 보는

장애차별 결정례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ISBN 979-11-7214-052-6 03330